세계로

체질에 맞춘 한의약 헬스 케어,
캐나다에 진출하다

피트니스 한의원 박호연 대표원장

한의약의 세계 진출은 시작 단계이다. 그럼에도 현지에서의 긍정적인 반응이 꾸준히 들려오는 것은 한의약과 한의 의료인의 우수성에 대한 방증이라고 할 수 있다. 2023년 캐나다에 진출해 한국 의료 해외진출사업 우수사례로 선정된 '피트니스 한의원' 역시 성공적으로 해외에 정착하며 한의약 치료의 우수성을 보여주고 있는 성공적인 사례이다. 어떻게 단기간에 성공적인 해외 진출과 정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었는지, 피트니스 한의원 박호연 대표원장의 진솔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안녕하세요. 간단한 자기소개와 피트니스 한의원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피트니스 한의원 대표원장 박호연입니다. 동국대학교 한의대를 졸업하고 경희대학교에서 임상한의학 재활의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했습니다.

피트니스 한의원은 2012년 서울대입구역 인근에서 개원하여 한의약, 운동치료, 오스테오파시(인체의 외부 근골격계의 구조를 바르게 해주어 인체의 내부 장기들의 고유 기능이 정상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의학 방식)를 통합한 진료 시스템을 구축해 왔습니다. 10여 년간 움직임 진단과 신경발달학적 관점의 운동 재활, 오스테오파시 및 추나요법을 통해 통증과 체형 교정, 성장, 다이어트 등 다양한 환자를 보며 경험을 쌓았습니다. 그 결과 2023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의료기관 해외진출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캐나다 밴쿠버에 분원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Fitness OMC'라는 병원명은 단순히 운동과 치료의 결합이 아닌, '움직임을 통해 건강을 회복 한다'는 진료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캐나다 BC(브리티시 컬럼비아)주 버나비에 1호점을 개설했습니다. 2024년에는 랭리 지역에 2호점을 추가로 개설하였습니다. 2호점에는 원외탕전 시설도 함께 설치하여 탕전과 제환까지 직접 수행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미국과 캐나다 내 다른 클리닉과 협력하여 원외탕전 사업도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진료뿐 아니라 한약의 제형화, 유통까지 아우르는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는 중입니다.

피트니스 한의원이 캐나다 지역으로 진출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한국 정부가 2015년부터 의료기관 해외진출 신고제를 도입한 이후, 많은 한의사들이 미국이나 동남아, 중국 등으로 진출을 시도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미국의 비자 제도 변화, 기존 진출 한의원의 어려움 등으로 선진국 진출이 더욱 까다로워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선진국 시장에서의 한의약 확산이 의료 한류의 질적 성장을 이끄는 핵심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시장 조사를 하던 중, 캐나다는 미국보다 침구사·중의사·한약사 등 면허 체계가 더 세분화되어 있고, 민간 보험뿐 아니라 자동차 보험에서도 한방치료 보장성이 뛰어나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또한 과거에 제가 캐나다와 스페인에서 오스테오파시 과정을 수료한 경력이 있어, 캐나다에서 정식 면허로 보험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도 진출을 결심하게 된 중요한 계기였습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발간한 2023년 보건산업백서에
의료해외진출 프로젝트 우수사례로 소개된 피트니스 한의원(한의신문 제공)

해외 진출을 준비하며 어려운 점이나 인상 깊은 경험은 있었나요?

어려움은 정말 많았습니다. 무엇보다 비자 발급, 언어 장벽, 새로운 의료 시스템에 대한 적응, 그리고 현지 침구사 중의사 등과의 경쟁 구조 속에서의 입지 확보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장벽은 바로 한의약에 대한 낮은 인지도와 오해였습니다. 현지에서는 한의약을 단순히 '침이나 허브' 정도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아, 의학적 전문성과 안전성, 진단 기반 치료의 필요성을 설득하는 데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럼에도 실제 환자들이 만성 통증, 체형 불균형, 성장 문제 등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경험하며 입소문이 났고, 이 경험들이 큰 보람이 되었습니다.

피트니스 한의원에서의 환자의 체질, 체형 개선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나요?

기능 중심의 진단과 치료를 핵심으로 합니다. 먼저 움직임 진단 도구를 통해 기능 제한 부위를 찾고, 이후 오스테오파시와 추나 치료로 구조적 불균형을 바로잡은 후, 신경발달학적 관점의 움직임 재교육과 운동 처방을 통해 근본적인 회복을 유도합니다.

또한 초음파 진단, 체성분 분석, 혈액·소변검사, 맥진검사기 등 다양한 진단기기를 활용하고 있는데, 이 점이 오히려 한국 한의약의 객관성과 과학성을 어필할 수 있어 현지에서 큰 강점 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한의약을 통한 헬스케어에 대해 현지의 반응은 어떤가요?

2023년에 캐나다 버나비에 1호점을 개설한 다음 해인 2024년 랭리 지역에 2호점을 개설할 정도로 한의약 헬스케어가 캐나다 현지인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이유는 단순히 '한의약'을 캐나다 의료에 접목하고 있기 때문은 아닙니다. 한의약을 하나의 기반으로, 그 이상을 보여주기 위해 여러 요소들을 결합하는 통합의학의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캐나다에서 유효하게 받아들여졌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스테오파시 정식 학위를 취득하여 해당 면허로도 진료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는 구 생활체육지도자1급, 건강운동관리사 자격을 한의사 최초로 취득했습니다. 또한 필라테스, 크로스핏, KAATSU(가압 트레이닝) 등 다양한 운동지도자 자격증도 함께 갖추고 있어, 이러한 전문성들을 유기적으로 결합한 진료 시스템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캐나다 현지에서 환자의 체형 교정이나 운동능력 향상을 위해 노력한 사례 중 인상적인 것이 있으시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한국과 캐나다의 진료 환경 차이가 특히 인상적입니다. 한국에서는 아직 한의약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은 경우가 꽤 있는데, 캐나다에서는 국가 차원에서 차별이나 혐오 표현에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의료영역 안에서도 상호 존중의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한국에서 무료로 하거나 낮은 수가를 받으며 임상에서 충분히 구현하지 못했던 치료들이 해외에서는 환자의 지불 의사와 존중 속에서 온전히 구현된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의약 해외 진출의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무엇보다 경쟁이 상대적으로 적고, 의료영역 간의 극단적인 갈등이 적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사실 한국에서 오스테오파시와 운동치료를 결합해 진료하는 전문가로는 제가 선도적인 입장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직은 운동치료 자체가 제도화되지 못한 문제가 있어요. 더구나 한국에서는 끊임없는 홍보와 마케팅 경쟁 속에서 임상 경험이 적은 의사들과도 경쟁해야 하는 현실이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캐나다에서는 진료의 퀄리티와 전문성만으로 환자들이 알아봐주고 찾아오는 구조이기 때문에, 의료 본연의 가치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국내는 의료법상 1인 1개소 제도, 상업적 마케팅에 대한 규제, 보장성 높은 건강보험 제도 등으로 인해 의료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장치들이 잘 정비되어 있는 반면, 해외는 그런 규제가 없습니다. 그만큼 실력과 차별화된 콘텐츠, 신뢰를 줄 수 있는 구조적 진료 시스템이 더 중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반대로 단점이나 미리 준비해야 할 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선 세금 구조가 복잡하고, 이중과세 이슈가 생길 수 있어 사전에 회계와 법률 자문이 필요합니다. 또한 한국에 기존 병원을 남겨놓은 채 이주할 경우, 한국에 남겨놓은 병원이 원장 없이 운영되는 데 따른 위험이 큽니다.

해외 진출의 성공 사례를 본 뒤 따라 들어오는 후발 진입자들은 현지의 상황을 잘 모른 채 '좋아 보이니까 나도 해야지'라는 생각으로 접근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철저한 시장조사와 중장기 계획 없이 진출하는 경우 오히려 큰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점을 꼭 전달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이나 목표는 무엇인가요?

단기적으로는 2025년 캐나다 밴쿠버 다운타운에 3호점을 개설하고 안정화하는 것입니다. 중장기적으로는 LA 올림픽, 월드컵 등 국제 이벤트를 계기로 미국 시장과 교류를 확대하며, 기존의 개별 한의사 진출이 아니라 한국 한의사들이 함께 진출할 수 있는 브랜드 기반의 플랫폼을 구축하고 싶습니다.

즉, 한의약의 의료 품질과 철학을 북미에 제대로 소개할 수 있는 시스템과 브랜드를 만들고, 이를 통해 북미 내에서 한의약의 위상을 높이고, 한국 한의사의 해외 진출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구조를 확립해 보고자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향후 USMLE(미국 의사면허시험)도 준비하며, 한의사로서의 영역을 넘어서는 융합형 의료인의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탐구하고 있습니다.